나주시 104ha 전문단지 조성…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공산중포영농법인 농식품부 공모 선정 국·도비 8억9000만원 확보

5년간 조사료 제조비·기계장비·종자 구입·퇴액비 살포비용 등 지원

나주시가 5년간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나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산면 중포리 일대에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한다.

나주지역 첫 조사료 전문단지는 104ha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조사료 전문(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나주 공산중포영농조합법인(대표 임기진)이 선정되면서 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면서 공산중포영농조합법인은 사업 첫해 국·도비 8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나주시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의 10% 상당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되면서 5년간 1억2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확보한 재원을 기반으로 오는 2028년까지는 단지 규모를 160ha로 확장할 계획이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건초 등을 생산하는 경종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산중포영농조합법인은 앞으로 5년간 조사료 제조비, 기계장비, 종자 구입비, 퇴비 살포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경종농가에서 농작업을 대행할 계획으로, 이는 고령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나주시는 내다봤다.

나주시는 조사료 파종 면적을 지난해 3100ha에서 올해 3300ha까지 늘리고 조사료 제조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내년부터는 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공급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내년 전문단지 확충을 위해 종자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지역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품질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은 물론 제조비 절감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농가 또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유휴 농경지를 이용한 경종 농가의 소득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윤병태(왼쪽 세번째) 나주시장이 농식품부 주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산중포영농조합법인 임기진(왼쪽 두번째) 대표, 관계자, 축산과 직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함평군 해보면 문장꽃무릇시장에서 열린 '주민 거점 공간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 문장꽃무릇시장 '도시재생 주민 거점 공간' 문 열어

주민·상가 연계 각종 상생행사

함평 문장꽃무릇시장에 '도시재생 주민 거점 공간'이 문을 열었다.

함평군은 최근 해보면 문장꽃무릇시장에서 도시재생 주민 거점 공간 개소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와 윤앵랑 함평군의회 의장,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협의체,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 거점 공간은 해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오일장인 문장꽃무릇시장(3일·8일)은 함평 동북부의 경제 거점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주민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주민과 상가를 연계한 상생 행사를 열어 꽃무릇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하나로 '문장시장 축제' 등 시장 상인회와 주민이 함께 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장시장 축제는 오일장이 열리는 날(3일·8일)에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무대와 주민 참여 행사가 열린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을 소생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군에서도 주민들의 의지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주도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1t들이 콩 정선기 임대…작업 시간 단축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능주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최근 도입한 1t들이 콩 정선기로 정선을 하는 모습.

화순군은 작업 시간을 75% 줄일 수 있는 1t들이 콩 정선기를 최근 도입해 농업인들에게 빌려주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1t들이(톤백용) 콩 정선기는 화순군 능주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t들이 정선기는 메주콩 정선용이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능주 본소는 원래 있던 포대용뿐만 아니라 1t들이 자루를 이용해서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보수했다.

기존 포대용 정선기가 1t을 정선할 때 4시간이 들었다면, 1t들이 콩 정선기로는 1시간 만에 작업할 수 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농작업의 기계화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1t들이 정선기 도입은 화순군의 전략 작목인 콩 재배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12월 15일까지

군부대원 주거관리비 지원 신청

담양군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오는 12월15일까지 고교생·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과 군부대원 주거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고교·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은 지역에 전입한 뒤 6개월 이상 지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5만원을 지원한다.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107명에 2675만원을 지원했다.

군부대원 주거관리비 지원은 지역에 전입한 뒤 12개월 이상 지난 군 부대원(부사관·장교)을 대상으로 연 1회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담양군은 상반기 신청하지 않은 부대원의 신청을 이번에 받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담양군은 2명 이상 지역에 전입한 세대에게 대숲맑은 담양 쌀 등의 물품을 지급하는 '담양 곳간꾸러미 지원사업'도 매달 추진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군 이달말까지 가로수 월동 작업 마무리

장흥군은 이달 말까지 겨울철 가로수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월동' 작업〈사진〉을 마무리한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 한파와 제설제인 염화칼슘으로 인한 나무 피해를 막기 위해 월동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해를 입지 않도록 나무에 볏집과 차단막을 씌워 꼼꼼하게 보온 작업을 할 예정이다. 작업은 탐진강 주변 후박나무와 산단로 황금사철 띠녹지 구간, 주요 관문 도로, 시가지에서 이뤄진다.

장흥군 관계자는 "매서운 추위 속에 나무가 한해를 입지 않도록 볏집·차단막으로 꼼꼼하게 보온 작업을 하고 있다"며 "쾌적한 가로경관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 입주자 모집

강진군이 오는 12월4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전경.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한 달 1만원을 내면 새 단장한 빈집에 살 수 있는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 신청을 받는다.

입수 신청은 오는 12월 4일까지 받는다.

강진군은 농산어촌 유학생 전용 주택 1곳을 일반 귀농귀촌인 대상자 거주지로 변경해 시범적으로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말에는 2차 7가구, 내년 1월에는 3차 4가구를 모집한다.

빈집 1호점 입주자에 선정되면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차료 1만원만 내면 된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2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새로 단장한 빈집에 입주하려면 공고일 기준으로 강진군에 소유한 주택 없이 다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상태여야 한다.

여기에 강진군에 전입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전입(예정)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가·지자체 주거 지원 사업 수혜자이거나 공공기관 근무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 정오, 오후 2시, 오후 4시 '집 보러 가는 날'을 운영해 입주 희망자들이 직접 집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전입 예정 가구원 수와 청년 여부,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리모델링 빈집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애초 계획보다 조금 서둘러 1호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리모델링 빈집은 추가로 계속 제공될 예정이며, 인구소멸 대응 방안의 성공 사례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성군(군수 김한종·왼쪽 두번째)이 27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정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내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확정

사회보장 대표협의체 2차 회의

장성군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성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내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체 대표위원들과 김한종 장성군수,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연구용역과 보고회,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6년 4월까지 추진할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정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목표로 두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점검한 43개 세부사업에 대한 올해 추진 실적을 심의했다.

또 내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시행계획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실행 내용을 기반으로 변화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사회보장'은 지역민이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정적 제도다.

장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향을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법 41조에 따라 대표 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기관·법인·단체·시설 관계자들이 대표위원을 맡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협의체와 힘을 모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진정한 군민 행복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